



### 한국 화물선 골든로즈호 침몰...선원 16명 실종

# “中 선박 구조 조치 않고 현장 이탈” 확인

## ■ 中 진성호 선원 증언

한국 화물선 골든로즈호와 충돌한 중국 컨테이너선 진성(金盛)호는 사고 발생후 골든로즈호 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항해를 계속했다는 사실이 진성호의 한 선원에 의해 확인됐다.

이 선원은 산둥(山東)성에서 발령되는 한 신문과의 휴대전화 통화에서 12일 새벽 3시께(이하 중국시간) 진성호가 사고 해역에서 크게 흔들린 후 잠깐 멈춰 섰다가 곧 정상속도를 회복해 라오닝성 다롄(大連)을 향해 항해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리(李)씨 성을 가진 이 선원은 당시 선체의 흔들림이 다른 선박과의 충돌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배가 다롄항에 입항한 후에야 알게 돼 선장이 해상수색·구조당국에 신고했다면서 진성호와 골든로즈호의 “현격한” 크기 차이로 인해 충돌 사실을 당장 알아채지 못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리씨의 주장=리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진성호는 산둥성 엔타이(煙臺)해역(동경 121도41분96초, 북위 28도14분41초) 부근에 이르렀을 때 선체가 갑자기 크게 흔들리면서 진행속도가 느려졌다. 깊은 밤이었던 당시 리씨를 비롯한 대부



중국해역에서 침몰한 골든로즈호의 실종 선원 가족들이 14일 선박관리회사인 부광해운에 처러던 대책위 사무실에서 충돌사고와 관련된 각종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中 선원 “충돌 사실 입항 후에야 알았다” 주장 사고 신고·입항시간 달라 책임 회피 변명 추정

분의 선원들이 선실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진성호가 잠깐 멈추었다는 이어 정상속도를 회복해 항해를 계속했기 때문에 모두 다른 배와 충돌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성호가 예정대로 다롄항에 도착한 후 선박수리원들에 의해 배의 앞부분

이 이상한 모양으로 변형된 사실이 발견되고 나서야 엔타이 해역에서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진성호 선장은 즉각 해상수색·구조요청에 그 위치를 통보했다.

리씨는 다롄항 도착 후 모두 배에 억류된 진성호 선원들이 골든로즈호의 수색·구조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으며, 갑판원

들이 “사고 당시 해상에 150m 앞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안개가 끼어 이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다.

◇주장의 허구성=직책이 알려지지 않은 리씨가 밝힌 사고 당시의 상황은 진성호가 골든로즈호와 충돌한 후에 아무런 구조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으로서 이는 객관적 사실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입항 후에야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했다는 주장은 고의로 구조조치를 방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사고 후 현장 이탈에 따른 책임을 가볍게 해 보려는 속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은 엔타이 해사국의 사고발생 신고 접수시간을 12일 오전 11시40분, 진성호의 다롄항 입항 시간을 오후 2시50분으로 보도한 바 있으며, 중국언론에 보도된 진성호 입항시간이 맞다면 입항 후에야 충돌 사실을 알고 신고했다는 리씨의 주장은 거짓이기 때문이다.

사고 당시에는 다른 선박과 충돌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엔타이시 해사국의 신고 접수시간을 보면 최소한 다롄항 입항 시간 전 이미 충돌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불을 보듯 드러난다. /메이징=연합뉴스

## 日 국민투표법 가결...개헌 논의 급물살

### 전쟁 포기·전력 비보유 명기 ‘헌법 9조’ 논란 핵심 될 듯

일본 참의원은 14일 낮 본회의를 열고 자민당과 공명당이 제출한 헌법개정 절차법안 국민투표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헌법 시행 이후 60년만에 헌법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처음으로 마련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참의원은 이날 221명이 표결에 참여, 찬성 122표 반대 9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과 사민당 등 야당은 반대표를 던졌으나 자민당과 공명당의 지지에 힘입어 법안은 과반수 찬성으로 참의원을

통과해 사실상 확정됐다.

국민투표법은 공포 후 3년이 지나야 헌법 개정안의 제출, 심사를 가능토록 ‘동결기간’을 설정했다. 따라서 개헌안 발의는 빨라야 2010년 5월이나 가능하다.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는 아베 총리가 최대 관심을 두고 있는 헌법 9조가 논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뿐 아니라 공명여당의 공명당 내에서도 ‘전쟁 포기, 전력 비보유’를 명기하고 있는 헌법 9조 개정에 신중론이 우세하다. /도쿄=연합뉴스



시위대가 14일 도쿄 시내 일본 의회 앞에서 개헌절차에 관한 정부의 국민투표법안에 반대하는 데모를 벌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 사르코지 16일 대통령 직무 시작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가 16일 공식 취임하면서 임기 5년의 차기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개시한다.

사르코지 당선자는 이날 오전 11시 자크 시라크 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직을 인수하고, 곧바로 독일로 날아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유럽연합(EU) 헌법 부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르코지는 이어 17일 자신과 함께 개혁정책을 견인할 새 총리를 임명한다. 총리 후보로는 온건 개혁 성향의 프랑수아 피용 전 교육장관이 유력하다. 또 18일 또는 늦어도 20일까지는 새 내각을 구성할 예정이다.

사르코지는 이미 각료 수를 15명으로 줄여 작은 정부를 만들고, 최소 7명의 여성 각료를 임명하겠다고 예고했다. /파리=연합뉴스

## “지구온난화로 2050년 난민 10억명 발생”

### 英 민간구호기관 경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물과 식량부족으로 2050년까지 최소한 10억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민간구호기관이 14일 경고했다.

영국 민간구호기관인 크리스천 에이드는 이날 발표한 ‘인간 조류(潮流): 이주 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선진국은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공해 대부분이 책임이 있다고 지적,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인 빈국의 지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런던=연합뉴스

보고서의 주 저자인 존 데이비슨은 “강요된 이주야말로 오늘날 개도국 빈자들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과학자들은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방출로 금세기에 평균 기온이 섭씨 1.8~3.0도 높아져 홍수와 기근이 발생하고 수백만명의 목숨이 위협에 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후변화 정부간위원회는 2080년까지 지구 인구의 3분의 1인 최고 32억명이 물부족, 6억명은 식량부족, 700만명은 연안홍수를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런던=연합뉴스

## 철재코일 5,900t 적재...측면 들이받힌 듯

### ■ 왜 한국 화물선만 침몰했나

중국 동부 산둥(山東)성 엔타이(煙臺)해역에서 12일 새벽 제주 선박 3천800t급 화물선 ‘골든로즈’호가 비슷한 규모(4천t급)의 중국 화물선 ‘진성호’와 충돌했는데 골든로즈호만 침몰한 것은 화물 적재량의 차이와 측면충돌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골든로즈호의 관리회사인 부산 동구 초량동의 부광해운에 따르면, 골든로즈호의 재원은 길이 105.5m, 폭 16.3m, 높이 8.4m고, 진성호는 길이 113m, 폭 19m, 높이 8.5m로 두 배는 규모 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중국 현지 조사원과 변호사 등을 통해 다롄항에 억류된 진성호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시 엔타이에서 다롄항으로 항해 중이던 진성호는 빈 배였다.

반면 다롄항에서 출항, 충남 당진으로

항하던 골든로즈호는 무려 5천900t의 철재코일을 싣고 있는 상태였다.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진성호가 물 위에 상당히 떠 있었던 반면 골든로즈호는 수면 아래로 상당히 가라앉은 상태로 항해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게다가 진성호 선수의 최하단면인 ‘볼보우스 보우(Bulbous Bow)’의 오른쪽 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고, 선박의 오른쪽 측면에 6m 가량 굽힌 자국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진성호가 선수로 골든로즈호의 오른쪽 측면을 약 45도 각도로 강하게 충돌한 뒤 골든로즈호를 스치면서 지나간 것으로 부광해운 측은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골든로즈호의 오른쪽 중간 부분에 큰 구멍이 생겨 바닷물이 유입됐고, 충돌에 따른 충격으로 배가 기울어져 지면서 싣고 있던 철재코일이 한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골든로즈호가 급격하게 침몰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연합뉴스

## 中 해난사고 합동조사팀 구성

### 골든로즈호 선원 수색 성과 없어

중국 해사당국은 골든로즈호 침몰사고와 관련, 해난사고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사고원인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사고해역에 대한 수색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중국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중국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교통부 소속 해상구조중심은 사흘째 산둥(山東)성 정부와 공동으로 선박 50여 척과 수색구조 헬기, 그리고 적외선망원경과 항만레이더까지 투입해 야간까지 사고해역에 대해 광범위한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현재까지 실종 선원의 사체를 단 1구도 발견하지 못했다.

중국 해사당국은 선체에서 유출된 기름띠 등을 근거로 선박 침몰지점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과 해류 방향을 계산해 수색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골든로즈호 실종선원 가족들은 15일 산둥성 엔타이로 출발할 예정이다. /선양=연합뉴스



중국 해상에서 제주선적 화물선 골든로즈호를 침몰시킨 중국 화물선 진성호의 사고 흔적이 14일 공개됐다. 진성호의 선수부분(위)과 배 오른쪽(아래)이 사고 충격으로 부서져 있다. /연합뉴스

국제약품 기업광고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캠페인은 제 11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어보" 사랑해요!

## "엄마" 사랑해요! "어보" 사랑해!

# 한마디 말로도

당신곁에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의 병에는 약리의 화학작용 이외에 마음의 화학작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약보다 사랑이 먼저인 사람들에게 한결을 한결을 다가설 때마다 국제약품은 무엇을 베풀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큰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약리의 과학과 함께 사랑의 힘을 믿는 회사 사랑으로 건강해 지는 세상 국제약품이 앞장서겠습니다. 국제약품은 사랑의 효능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 국제약품

SENSTICK